

일본의 '배상문제' 이렇게 본다

3

1991. 8. 17 1/3
가장 처절한 상처 '정신대' 윤 정 옥

정신대의 발자취를 찾아 지난 89년 남태평양 뉴브리튼 섬의 라바울을 찾았던 필자는 해안선을 따라 뚫려 있는 굴들을 둘러보며 느꼈던 전율을 잊을 수가 없다. 2차대전 말기 연합군의 공습이 심해지자 일본군대와 정신대의 위안소까지 굴속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드디어 일본군대가 퇴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신대 여자들을 모아놓고 굴을 폭파해 버렸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비인간적이고도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배상은커녕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신대에 대한 사실 규명·사죄·배상요구에 일본정부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할 수 없다.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조약으로 해결됐다”고 잡아떼고 있다.

정신대, 좀더 명확히 말해 중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여성들이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제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강제로 정신대로 끌려가 그 처절한 세월 속에서 살아 남았던 본인들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드러내기를 꺼려 덮여 왔던 이

그러나 일본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이 시한을 넘겼고 그해 12월과 해를 넘긴 올해 3월 두 번이나 답변을 촉구한 우리의 독촉장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대책협의회쪽을 불러 한 참사관이 “공개편지를 받고 조사를 했으나 그 단서가 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조선인 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사죄하는 것도, 위령비를 세우는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또 “이것은 공개편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설명’”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설명 내용이 적힌 명령서 복사본조차 우리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다.

일 국회선 최근 쟁점화

엄연하고도 엄청난 역사상 범죄사실을 잡아떼면서 그러한 거짓말의 증거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일본의 간교한 모습이 었다.

우리는 그뒤 일본 참의원 예산위 회의록을 통해서 조선인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 말고도, 정신대가 일본정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돼 대부분은 중군위안부로서 전쟁터로, 일부는 근로정신대로서 일본의 공장·탄광 등으로 보내졌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43년 5월 서부군관구로부터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회장을 겸한 지사에게 교부된 다음과 같은 ‘노무동원’ 명령서가 최근 발견됐다. 즉 “△항공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2백명 △나이 18살 이상 30살 미만(기혼자도 가능, 단 임신부는 제외) △신체 강건한 자(의사의 신체검사, 특히 화류병의 검진을 마칠 것) △기간 1년(자원하면 늘일 수 있음) △근무지 중부 중부 △동원지구 조선 전라남도 제주도 △파견일시 소화 18년(1943년) 5월30일 정오 △집합장소 서부군 제74부대...”자, 이래도 일본정부와 군은 관여를 안했다는 것인가.

이번 정신대문제뿐 아니라 다른 징용·징병의 배상요구에도 일본정부가 언제나 방패막이로 내미는 “한일협정의 청구권으로 다 해결됐다”는 대답도 그렇다. 정신대에 대한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은 일본정부가 그 당시에 무엇을 근거

새증거 잇따라도 ‘모른다’ 일관 우리국회도 문제제기에 나서야

문제가 종전 45년만에 일본정부의 눈앞에 들이밀어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여성학을 공부하던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내놓았다.

45년이나 덮여진 문제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했던 여대생들과, 이들과 뜻을 함께했던 여성단체들이 그해 10월 17일 일본의 [카이후 도시키 내 카츠키레지] 안으로 공개편지

중군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성 와카바야시 직업안정국장이 “당시의 후생성 근로국과 국민근로동원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로부터 사정 청취를 했으나 조선인 중군위안부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성으로서는 그 경위 등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단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모토오가 쇼지 의원(사회당)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실태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시 한번 사태조기

로 배상을 해서 다 해결되었던 말인가. 정신대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야말로 말을 뒤집으면 10만~20만 조선인 정신대의 처절한 상처를 일본이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는 자백이요, 한국인들에게 역사의 빛을 지고 있다는 증빙이다.

근거없는 청구권 배상

정신대 문제는, 여자들이 ‘순결’을 더럽히고 일본군인들의 성취리 대상이 되었다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도 그 치욕스